'나와 이웃은 하나' 뿌리 내리기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이하 깨·사)이 시민운동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오는 15일 개최하는 '깨달음의 사회화 후원의 밤' 행사에서 깨·사운동을 새로운 불교운동을 이끌어 갈 강력한 실천주체로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 문사부는 이와관련 "깨·사를 본격적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위해 구체화된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며 "6월경 조직체계를 정비해 본격가동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깨달음의 사회화' 프로그램

- 실천운동—승가공동체 체험·일일출가
- 사회운동—법률정책연구·공청회·의정감시
- 지원활동—모범사례발굴·자원봉사자 교육

'깨달음의 사회화' 시민운동 전환 의미

구호성 캠페인 여론에 사업영역 확대
불교사상·문화바탕 신행혁신 재점검

이처럼 조계종이 깨·사운동을 시민운동차원으로 승화시키고자하는 것은 그동안 성금지원 이외에는 구호형태의 캠페인성운동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운동의 방향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조계종이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깨·사운동은 △한국불교가 민족, 세계사적 발전에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역할담당 △사회정의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불교계 역량동원 △불교사상과 문화를 바탕으로한 사회발전 제시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신행 혁신을 꾀하는데 있다. 이를위해 총무원은 지역, 사찰과 신행조직을 총망라하는 깨·사운동 추진본부를 결성, 3단계 발전계획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종단과 별개로 자생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추진본부는 구체적 실천방향으로 △실천운동-승가공동체 체험, 일일출가 △시민사회운동-공익소송, 공청회 및 연구활동, 법률 및 정책활동, 사회예산 증액운동, 예결산 및 의정감시, 국민캠페인, 모니터링 △지원활동-모범사례 발굴, 활동자금 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조직화 등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통일, 환경등 중요한 사업은 전문화시켜 독자적 사업으로 전개할 전망이다.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라는 주제의 깨·사운동은 지난해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신년법어에서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 진리의 몸을 얻는다"는 교시에 따라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성도절을 기해 깨·사운동의 전개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월주스님은 △사회는 하나, 우리는 하나임을 깨달아 대동세상 이뤄내자 △민족은 하나, 민족이 하나임을 깨달아 통일조국 앞당기자 △자연은 하나, 자연이 하나임을 깨달아 푸른정토 가꿔가자 △세계는 하나,세계가 하나임을 깨달아 인류평화 기여하자는 4대실천강령을 채택, 직접 전국의 사찰을 돌며 깨·사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모금을 벌이는등 총단차원의 불교실천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렇게 모금된 깨·사성금은 총 4억여원에 이르고 이가운데 2억여원을 일본 고베지역 지진피해지원, 대구가스폭발사고지원, 사할린 영구귀국노인 자립안정기금, 베트남 한인 2세지원등 총 57회에 걸쳐 지원사업을 펼쳤다.

깨·사운동은 지난해 중앙승가대학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는등 불자들의 높은 호응속에 전개되었다. 그러나 깨·사운동을 이끄는 주체가 불명확하고 단순히 지원사업에만 머무르자 새로운 방향모색이 요구됐던 것이다.

이처럼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시민운동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깨·사운동에 대해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고있는 교계의 시민운동까지 종단의 관장하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흔 경불련위원장은 "시민운동은 자발성, 창의성, 자원봉사에 기초하는 것으로 종단이 직접 시민운동차원의 불교운동을 전개하기보다는 사찰, 신도조직이 민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노선 현지 공동답사…이달 말께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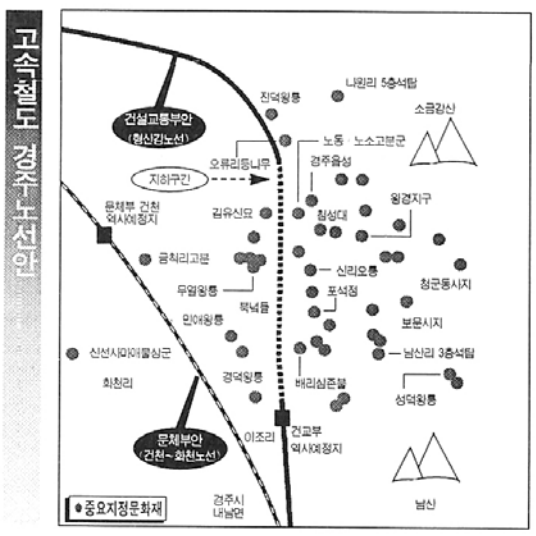
1면에서 계속

백지화추진위는 또 정부에 대해 "기존 건교부의 경주 도심과 남산을 통과하는 노선을 완전백지화하고 문화체육부의 새노선안을 채택할 것"과 경주를 비롯한 고도(古都) 보존정책의 수립을 촉구했다.

경주확정역사사수 범시민단체협의회도 지난 2일 기존의 건교부안 지지 입장을 철회했다. 시민단체협 재무부장 김도경씨는 "시민단체협은 경주지역을 통과하고 .역사(驛舍)가 들어선다면 어느 노선이든지 상관없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호 〈경주발전〉에 시민단체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기고문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문화재관련 학계도 경주통과 반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대구 계명대에서 열린 영남고고학회 제5회 학술발표회에서 이희준 경북대교수는 '발굴유적의 보존문제'를 통해 "경주는 고분이나 시가지의 땅을 파서 나오는 문화재는 물론 경주와 주변일대가 유례없는 역사적 문화적 환경을 이루는 곳"이라며 "고속철도의 경주통과나 역사건설은 문화재뿐아니라 역사·문화환경 파괴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노선의 변경불가가 건교부의 입장"이라고 기존노선의 지하화 의사를 거듭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29일부터 2일까지 경주현지조사를 벌였던 문체부 건교부 공동조사단 현지답사 보고서를 작성해 총리실로 각각 제출하며,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5월말까지 노선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4월 30일에 이어 2일 공동조사단 간담회를 갖고 문화재보호라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노선조정에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동조사단에는 문체부에서 추천한 한병삼 전국립중앙박물관장, 김석철 아키반대표, 임성빈 명지대 공과대학장, 김종철 계명대박물관장, 이선복 서울대교수와 건교부에서 추천한 장윤익 경주대총장, 최정필 세종대인문대학장, 최용한 경주남산보존회장, 김현식 국토개발연구원 도시연구실장, 차동득 대구시 교통개발기획단장이, 총리실에서는 황수영전동국대총장을 단장으로 지명했으며, 문체부 건교부 실무자 3명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동대문운동장서 종각까지"

19일 연등축제 거리 레이져쇼등 행사 풍성

오는 19일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보신각앞까지 거리가 연등축제거리로 지정되고 다양한 봉축행사가 펼쳐진다.

봉축기획단(단장 법타)은 지난 1일 △국민적 축제의 장 △불교문화 홍보 △고유전통인 연등행사 계승 △월드컵개최 기원을 골자로 하는 연등축제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19일 오후 4시, 동대문축구장에서 봉축법요식을 시작으로 종묘공원에서 의장대 시범과 불교방송 공개방송이 동시에 열리는 연등축제는 예년과 달리 법요식, 연등행렬을 단축하고 새롭게 연등축제 회향식을 마련한다. 오후 6시부터 진행되는 회향식은 보신각앞 야외공연장을 중심으로 승무, 풍물패 놀이한마당, 불교영상물 상영, 레이져 쇼, 연예인 공연등이 펼쳐지고 월드컵 유치를 기원하는 촛불꽃이 행사가 열린다. 또한 탑골공원에서는 연등을 든 시민이 참석하는 강강술래가 탑돌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획단은 이날 제일은행앞에 연등만들기 시연장을 마련해 다양한 봉축 등을 제작 시연하고 시민과 함께 등을 만들어 이웃에 나누어 준다. 외국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동대문운동장, 보신각, 제일은행앞에 안내센터를 운영한다.

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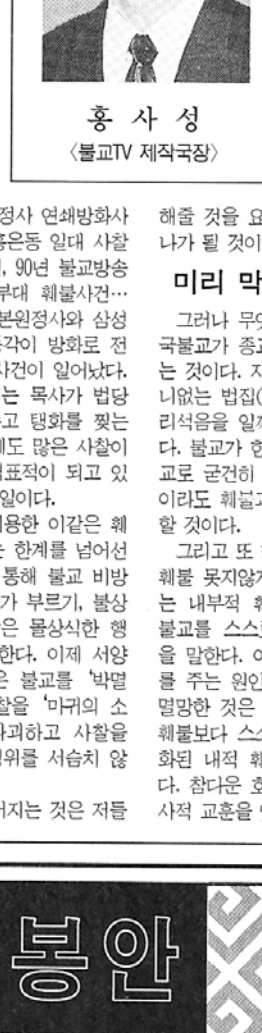
이교도들의 범죄적 훼불

인도의 불교성지를 순례한 사람이 느끼는 감회는 감동이 아니라 쓸쓸함이다.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 설법과 열반을 기념하는 4대성지 어디를 가보아도 쓸쓸한 폐허 뿐이다. 최초의 절 죽림정사, 부처님이 24회나 여름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세계 최대의 불교대학이던 날나다 사원도 잡초가 무성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세기적 편견의 재등장

인도의 불교유적지가 이렇게 황폐해진 이유는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인도를 침입했던 이슬람의 무자비하고 철저한 파불(破佛)때문이다. '코란이 아니면 칼'이라는 이슬람의 오만과 편견이 세계에서 가장 평화스런 종교인 불교를 무참하게 무화(無化)시키고만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이 알라신의 이름으로 불교사원을 파괴하고 승려를 살해한 것은 씻을 수 없는 과오였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종교의 제일 덕목인 자비와 관용을 저버렸다. 또 카스트제도의 불평등구조를 종교사상적으로 극복해 가던 불교를 축출함으로써 인도민중을 오늘날까지 카스트의 굴레에 놓이게 했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문명사적인 죄악이다.



홍 사 성
〈불교TV 제작국장〉

그런데 인도에서 이슬람이 저질렀던 범죄행위와 똑같은 일이 이번에는 20세기 한국사회에서 서양의 또 다른 유일신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그동안 서양종교의 광신도들에 의해 자행된 훼불사건은 일지(日誌)가 없으면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다. 86년 금산사 대적광전 방화사건, 87년 제주도 관음정사 연쇄방화사건, 89년 서울 평창동 흥은동 일대 사찰의 불상·석등 파손사건, 90년 불교방송 침입사건, 93년 육군모부대 훼불사건… 그리고 올해는 수유리 본원정사와 삼성암의 법당과 나한전, 종각이 방화로 전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경남 진해 청룡사에는 목사가 법당에 침입해 불상을 부수고 탱화를 찢는 난동까지 부렸다. 이밖에도 많은 사찰이 광신적 이교도들의 공격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불교의 관용성을 역이용한 이같은 훼불은 이미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설교시간을 통해 불교 비방하기, 절에 찾아와 찬송가 부르기, 불상앞에 오물 뿌리기와 같은 몰상식한 행위는 차라리 애교에 속한다. 이제 서양종교를 믿는 이교도들은 불교를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 사찰을 '마귀의 소굴'이라면서 불상을 파괴하고 사찰을 방화하는 범죄적 공격행위를 서슴치 않는 실정이다.

여기서 더욱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저들의 교활하고 뻔뻔한 변명이다. 훼불사건이 격화되고 사회의 여론도 나쁘게 돌아가자, 저쪽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일부 정신병자들의 소행이라며 애써 사건을 축소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진실은 다른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찰방화나 훼불사건은 몇몇 정신병자들이 하지만 그런 정신병자를 만들어내고 뒤에서 사주하는 멀쩡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점이다.

물론 모든 종교는 저나름의 진리와 가르침이 따로 있기는 하다. 그리고 그 진리는 상대적 신념체계가 아니라 절대적 신념체계인 까닭에 진리와 구원의 문제에 관한한 양보나 화해는 있을 수 없다. 이 점은 불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것이 곧 다른 종교를 공격하거나 훼손하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짓은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일을 계속 방치해 둔다면 절대적 신념체계끼리 대결하는 종교전쟁은 불가피하다. 중동전쟁이나 보스니아사태가 그 좋은 예다. 아직 한국의 경우 그럴 기미는 없다지만 현재와 같은 사태가 계속될 때 장래를 낙관할 수 만은 없다. 그렇다면 불행한 일이 생기기 전에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훼불사건이 초래할 종교갈등의 심각성을 사회에 널리 알려서 여론화시키고, 관계당국에 범죄적 행위를 방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그 방법의 하나가 될 것이다.

미리 막아야할 종교마찰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한국불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자기종교만이 최고라는 터무니없는 법집(法執)에 빠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불교가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있는 종교로 굳건히 자리한다면 아무리 미치광이라도 훼불과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경계할 일은 외부적 훼불 못지않게 부처님의 정법을 훼손하는 내부적 훼불이다. 내부적 훼불이란 불교를 스스로 미신화(迷信化)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교도의 공격에 빌미를 주는 원인이 된다.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한 것은 이슬람의 공격이라는 외적 훼불보다 스스로 타락해서 힌두교에 동화된 내적 훼불이 더 중요한 원인이었다. 참다운 호불호법(護佛護法)은 이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을 때 가능하다.

봉 북한산 (삼각산) 노적사 오백나한 봉안 축

북한산(三角山) 적멸보궁

『노적사』 도량 경내지에 오백나한을 모십니다.
오백나한은 부처님, 재세시 제자 중에 아라한과를 증득한 오백성중을 말합니다.
서울의 두상과 같은 삼각산 적멸보궁의 명기어린 노적봉 산세는 『원효대사님』과 『의성대사님』께서 중성문을 두고 國運의 기도처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에 이르러 『노적사』에서는 오백나한의 봉안불사를 봉행하고 있사오니, 청정한 심신으로 성스러운 불사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충만하옵고 공덕을 지으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353-5016, 353-4924, 354-7900
■ 국민은행 : 024-21-0528-025 · 예금주 : 박병권
■ 신한은행 : 316-02-071939 · 예금주 : 박병권

대한불교 조계종 북한산 노적사 주지 : 석 종 후 합장